

2024  
WINTER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Care & Love

김재현 교수 · 소화기내과

## 원 고 모 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실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지원센터(3동1층)



# Contents

발행인 최중순 | 발행일 2024년 12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 Kosin Spirit

- 04 새로운 도약의 한 해, 2025년을 기대합니다 최중순·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 06 최고의 병원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8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후기II 이다현·간호대학 2학년

## Medical Essay

- 10 대장암의 씨앗 대장 용종에 대해 알아보자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 13 새로운 비만 치료제 이야기 I - 인크레틴이란 무엇인가? 김부경 교수·내분비내과
- 16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기 김민경 교수·치과

## Culture & Life

- 20 미국에서 온 편지 #3 박종빈 교수·피부과
- 24 하늘역새길을 따라서...영남알프스 재약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 28 달빛 걷기 김희자 수필작가
- 31 원목실 추천도서

## Kosin Inside

- 32 우.부.소. 이은진 과장·적정진료관리실
- 36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김미선 부장·간호부
- 38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구유진 기자·고신연론사
- 40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42 우리 병원 친절직원
  
- 48 KOSin 사랑i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 50 진료시간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새로운 도약의 한 해, 2025년을 기대합니다.



**최종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최종순입니다.

이렇게 병원보 겨울호를 통해 여러분들과 서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장기려, 오늘도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전공의 진료공백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24년 5월, 저는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눈  
코 뜰 새 없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공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역사회를 섬기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기독병원으로서의 '정상 진료'를 선포하고 진료공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무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당직을 자처하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상 진료 수  
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 최초의,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병원

본원은 1951년, 부산 영도에서 복음진료소로 출발하여 1978년 지방 최초 암센터를 개소해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화된 '중증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전해왔습니다.

올해 초,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당당히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지방 최초의 암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올 2025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아래와 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차별화된 '중증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본원은 부산지역 사립대학교병원 중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중환자실 확충 및 응급의료센터 중증치료구역 확장 등, 본원이 오랜 기간 중증 질환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원환자의 응급 심정지 발생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AI 기반의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중증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층 더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 최첨단 장비 운영을 통한 혁신

본원은 최신 영상의학장비(MRI)를 도입하여 환자들의 검사 대기시간 단축과 진단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신 디지털 혈관조영촬영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고 시술가능한 치료환경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 10월, 단일공 로봇 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도입하여 한층 더 고도화된 최첨단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환경에 있어 최첨단 장비를 통해 혁신적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의 병원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조카가 소장에 출혈이 생겨서 제가 다니던 00대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양산00대병원이나 고신대복음병원에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00대병원에 전화를 하니 곤란하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병원에서는 빨리 오라는 답신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 일이 날 뻔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 후, ‘복음병원이 어떤 병원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폐의 이상으로 교수님을 만났는데 심장내과 진료를 건의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제 심장이 오래도록 병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또 교수님이 난데 없이 비뇨의학과 진료를 권했습니다. 비뇨의학과 시술을 받았는데 늦었으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이런 병원은 처음입니다.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복음병원, 저에게는 최고의 병원입니다.”

복음병원에 1억 이상을 기부하신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자리를 마련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누신 말씀이었습니다. 한 기업체 회장님께서 마이크를 넘겨 받으셨습니다.

“복음병원은 지독해요. 병원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꼬인다는 것을 실감해요. 저는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뜬금없는 카톡 메시지를 받고 합니다. 송도의 아침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름다워 찍었다며 사진을 전송해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함께 왔는데 ‘회장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구름을 감상 하셔야지 손 끝에서 만든, 연기 구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었어요. 계속 그런 문자를 받다가 ‘그래, 건강하게 살자’며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어요.”

복음병원의 사명에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음병원입니다.

“복음병원의 언어는 남다름을 느꼈습니다. 최고와 최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와 인류애를 말하곤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 자기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번 돈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뜻있는 곳에 쓰여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복음병원의 언어는 늘 감동을 줍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나갔고 해야 할 일을 했었는데 복음병원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열심히 기업하시는 분들께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섬김을 약속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병원 원목협의회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기독교병원이 기억하는 복음병원은 한강 이남의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이 바탕된 복음병원은 환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암은 곧 사형선고였던 시대에 간암 환자에게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 많은 실패를 극복하여 대량간절제술을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한, 그 정신을 바탕으로 있습니다. 환우를 아픈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관심과 필요가 집중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우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환자중심의 병원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복음병원은 인류애를 실천하는 선한 마음으로 섬김을 다하는 병원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병원이기를 기도합니다. 복음병원을 통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모든 분들께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최고의 병원, 그것을 향해 전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후기 II 사랑과 치유의 순간들

 이다현 간호대학 2학년



지난 2월, 필리핀 두게가라오로 의료선교를 떠났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동기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첫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삶의 갈피를 잡게 된 것까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은 그만큼 배울 점도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제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설정해 준 첫 선교지가 필리핀이었을 때 그 친구 첫 번째 선교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 선교에 꼭 참여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호기롭게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준비하는 기간 내내 두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열여섯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문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부산이 아닌 타지에서부터 2-3시간에 걸쳐 오는 학생들, 그래서 더욱 부족했던 연습 시간,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는 선배님들의 사랑과 행감을 받던 후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후배들을 사랑해 주고 행거 주어야 하는 선배의 자리에서 처음 참여하게 된 선교라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다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저의 이러한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내 주었고 아쉽게 같이 가지 못하게 된 3학년 선배님들의 응원 덕분에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팀은 곧바로 사역지로 향했습니다. 이 날 예정된 의료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된 덕분에 운이 좋게 늦은 오후 어린이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몰려있는 아이들 틈사이로 비집고 앉아 페이스페인팅을 주었습니다. 완성한 후 카메라를 켜고 개개인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미숙한 그림 실력에도 좋아해 주는 아이들을 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제가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동안 목사님은 옆에서 요술풍선으로 재미난 풍선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셨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시고는 그 짧은 순간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떼로 몰려 있는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선교라는 것은 목사님의 방식처럼 삶 속에 녹아들어 '순간'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 사역 날에는 지난 해 기도와 후원으로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프로미스 자매를 실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선교에 함께하신 김구상 교수님 진료에서 프로미스에게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당시 어렵게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한 만큼 선교팀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교수님은 이날 밤 잠에 들지 못하고 오랜 시간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김구상 교수님께서 에스와티니 의사 면허를 미리 준비하신 덕분에 프로미스는 우리와 함께 에스와티니로 이동하여 무사히 또 한 번의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 내내 버스에서 함께 찬양했던 모습과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캠프파이어를 하며 찬양했던 모습은 이번 선교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며 목사님께 이번 선교에 기타를 가지고 가시냐고 여쭙 적이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라 목사님께서 기내용 기타를 새로 하나 장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선교 준비 동안 제가 가장 잘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기타 연주 덕분에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요하네스버그 돌아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선교지에서의 마지막 날 밤, 목사님과 간호사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풍선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선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고 선교를 하며 고마웠던 점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각자 일에 몰두한다고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한 간호사 선생님들, 선배님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진심 어린 기도를 나누고 1학년 동생들과도 하심탄회하게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던 기도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를 떠나기 이틀 전 밤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한 선배님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한마디를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간호는 사랑의 학문이다. 먼 옛날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사람이 병들고 죽으면 그냥 도태되는 거였는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같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간호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때 만난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경험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앞으로 만날 많은 환자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직은 여러 방면에서 미숙하고 어렸던 저도 체감 상 짧게 느껴졌던 사역들도 아쉬움으로 남아 내년에 다시 요하네스버그 땅을 밟는 저를 자꾸만 상상하게 됩니다. 선교 내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내년도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땅을 밟을 모든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 대장암의 씨앗 대장 용종에 대해 알아보자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형성되는 혹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일부는 성질이 변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선종이나 톱니 선종과 같은 전암성 병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 용종은 조직 검사와 현미경 분석을 통해 선종, 톱니 선종,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선종과 톱니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검사와 제거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과형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은 전암성 병변이 아니므로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종의 정확한 특징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제거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시술팀

특히 선종은 저(低)등급에서 고(高)등급으로 변화하며 크기가 커지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견된 용종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선종 제거 후 추적검사의 주기는 선종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및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군의 경우 3년 이내, 저위험군은 5년 후 추적검사를 권고합니다. 국내에서는 2년마다 권장하는 위암 검진 시기에 맞춰 고위험군은 2년 후, 저위험군은 4년 후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 용종의 발생 위험은 개인의 체질적 특성과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술, 담배, 육류 섭취는 용종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 용종을 발견하는 데 가장 정확한 검사법입니다. 분변 잠혈 검사, 대장 조영술, CT 대장내시경 등 다른 검사 방법도 있지만 정확도는 대장내시경에 비해 떨어집니다. 검사 전 복용해야 하는 장 세척제는 간혹 복부 불편감, 복통, 손발 떨림, 무기력감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나, 평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 세척제는 설명서에 따라 시간에 맞춰 복용하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면 이러한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천공 위험이 있는 검사이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내시경은 검사 중 불편감을 줄여 비수면 검사보다 편리하며, 반복적으로 받아도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김재현 교수팀이 최근에 제거한 직장의 16cm 크기의 큰 선종



입원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담당하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 전문 간호사 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진과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팀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주에 약 20건 이상, 연간 1,000건 이상의 용종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장에서 16cm 크기의 선종을 성공적으로 일괄 절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화기내과 전문 간호사 팀은 입원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 될 수 있으나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와 적절한 용종 제거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용종 제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며 대장암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장 건강,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재현** 교수 | 소화기내과


**□ 전문진료분야**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 새로운 비만 치료제 이야기 I

# 인크레틴이란 무엇인가?

 김부경 교수·내분비내과



최근 국내에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semaglutide)라고 하는 이 약제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GLP-1은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장에서 분비 되는 호르몬으로 현재 당뇨병의 치료제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와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치료제로 발전된 과정을 보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세마글루타이드가 왜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인크레틴이 무엇인가와 그 인크레틴을 발견하고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게 된 배경과 역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 인크레틴이란 무엇인가?

인크레틴 개념의 아이디어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시기에 유럽의 생리학자들은 췌장의 외분비 및 내분비 기전을 연구하였습니다. 결국 메링(Mering)과 민코프스키(Minkowski)는 췌장이 당뇨병의 기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02년 베일리스(Bayliss)와 스타링(Starling)은 세크레틴(Secretin)이라는 장 호르몬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스타링은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내분비학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스타링은 십이지장 점막이 췌장의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췌장 점막 추출물을 당뇨병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는 실험을 했지만 단백질인 호르몬은 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결과는 부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크레틴’ 개념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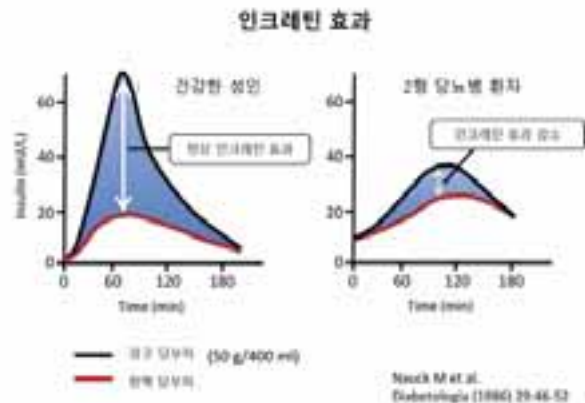
1932년 벨기에 생리학자 장 라바르(Jean La Barre)에 의해 처음으로 ‘인크레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세크레틴이 췌장에서 물과 중탄산염 분비를 자극하는 것처럼 또 다른 장 호르몬이 췌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할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췌장 호르몬(인슐린, 글루카곤, 췌장 폴리펩타이드(PP), 췌장 소마토스타틴)의 분비를 자극하거나 분비 자극에 기여하는 모든 장 호르몬이 인크레틴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 인크레틴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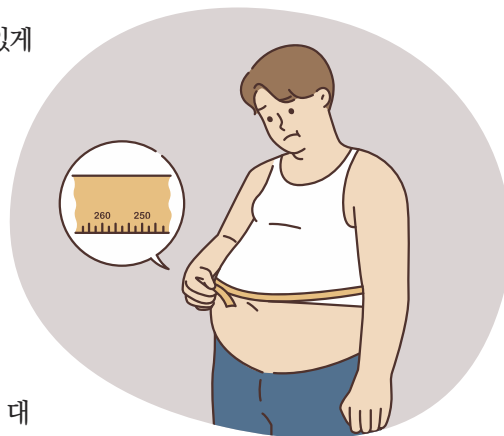
1960년대에는 베르손(Berson)과 알로우(Yalow)가 방사면역측정법(RIA)을 발명하여 생리학 및 내분비학에서 중요한 기술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피코몰(picomolar) 수준에서 생체 활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하여 당뇨병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인슐린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1964년 영국 런던에 있는 맥킨타이어(McIntyre) 연구팀과 미국 덴버에 있는 엘릭(Elrick) 연구팀은 경구 포도당이 정맥 포도당보다 훨씬 큰 인슐린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에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인자가 존재하며 이 호르몬에 의한 인슐린 분비 부분을 ‘인크레틴 효과’라 하였습니다.

그 후 인크레틴 효과를 정량화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퍼리(Perley)와 키프니스(Kipnis)은 인크레틴이 경구 포도당 섭취 시 인슐린 반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아마도 인슐린 반응의 3분의 2 이상일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위장관 질환자들에서는 이 효과가 작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 인크레틴의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이 호르몬들을 비교적 순수한 형태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스톡홀름에 있는 빅토르 뭇트(Viktor Mutt) 연구실에서 존 브라운(John Brown)은 GIP를 위산 분비 억제제로서 분리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 존 브라운과 존 뒤프레(John Dupré)는 GIP가 고혈당증 상태에서 인슐린을 강력하게 분비하도록 자극 하지만 정상 혈당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GIP는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타이드"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GIP의 효과는 경구 포도당 섭취 후 나타나는 인슐린 분비에 대한 장 호르몬의 전체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 후반 또 다른 인크레틴 활성 호르몬이 등장하는데 이 발견의 배경은 1960년대 앙거(Unger) 팀은 방사면역측정법(RIA)으로 장 점막이 췌장 글루카곤 펩타이드와는 다른 글루카곤 유사 면역반응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장 글루카곤(gut glucagon)"이라 하였고 유럽과 북미의 여러 연구소에서는 이후 이 장 글루카곤 펩타이드의 생체 활성 및 구조를 밝혀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램 벨(Graeme Bell) 팀은 1983년에 포유류 글루카곤 유전자를 클로닝 및 시퀀싱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DNA를 통해 추정된 프로글루카곤 구조가 췌장 글루카곤 서열 외에도 두 가지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및 GLP-2)의 서열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GLP-1과 GLP-2는 모두 장에서 발현되었는데, GLP-1 자체는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활동이 다소 미약했으나, 1987년 하베너(Habener)와 홀스트(Holst)연구소에서 GLP-1 짧아진 형태로 합성하게 됩니다. 이 짧아진 GLP-1은 눈에 띄는 인슐린 분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고 췌장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2형 당뇨병 치료의 명확한 약물 타겟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GLP-1은 또한 포만감을 유도하여 체중 감소를 돕고 당뇨병 환자에서 심장 기능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 당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만치료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GLP-1이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치료제로 개발되어 실제로 사용되게 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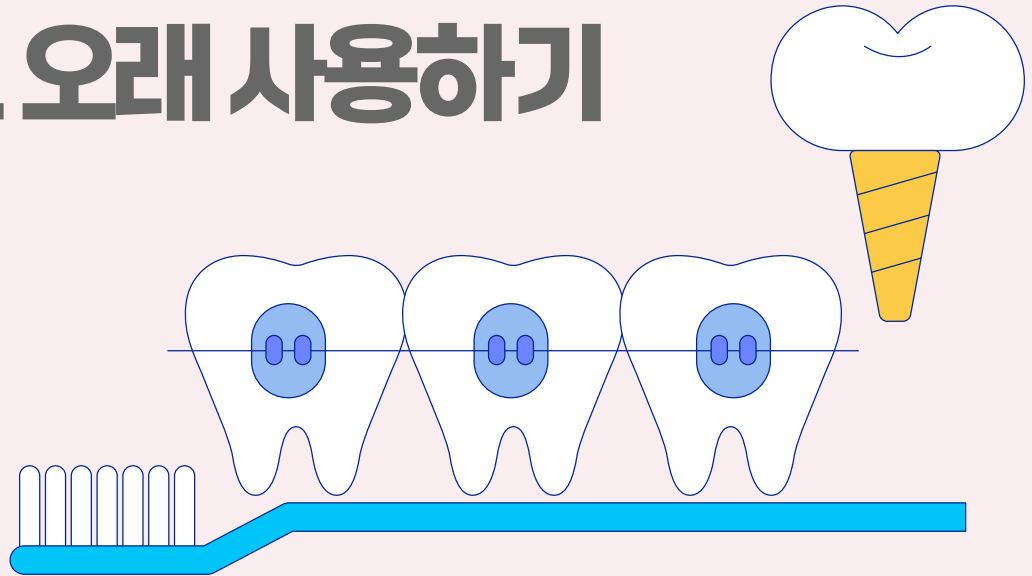
□ **전문진료분야**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시술

#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기

 김민경 교수·치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치아 소실이 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성인에서 다수의 치아가 소실됩니다.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데 지금까지는 고정성 또는 가철성 의치로 회복을 도모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상실된 부위에만 단독 수복 가능한 임플란트 치료가 발달하였고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로 골 흡수가 진행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종류와 원인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주위 치조골 침범 유무에 따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분류합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기능하는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가역적인 염증이며 이는 병적인 골소실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임플란트 주위염은 지지하는 골의 소실을 초래하는 염증과정으로 임플란트 주위로 환상형 골 결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주 원인은 세균에 의한 것입니다. 자연치에서의 염증성 치주질환처럼 세균과 숙주인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합니다. 세균 외에도 임플란트 위치가 처음부터 좋지 않거나 보철물의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파절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내부 부품이 부러지거나 손상되는 기계적인 원인으로 주위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는 위아래로 가해지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치는 힘에는 약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를 갈거나 하는 원인으로도 임플란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불량한 구강위생 치주염 병력, 흡연 등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위험 요소입니다. 식립 부위에서의 부족한 골량, 숙주 반응의 저하, 당뇨병, 음주, 유전적 특성 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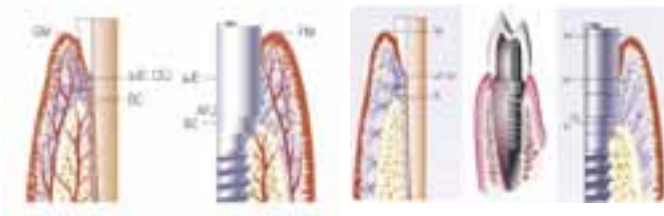
이런 기여 요소들은 숙주반응,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생물학적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상

임플란트의 주위 잇몸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출혈입니다. 양치질 할 때 평소와 다르게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가 난다면 잇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꼼꼼하고 적극적인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의 사용 등을 통해 관리 후 출혈이 멎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치과에 방문해 점검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자연 치아에 비해 생물학적 구조상 감염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연치와 달리 신경이 없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해도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치아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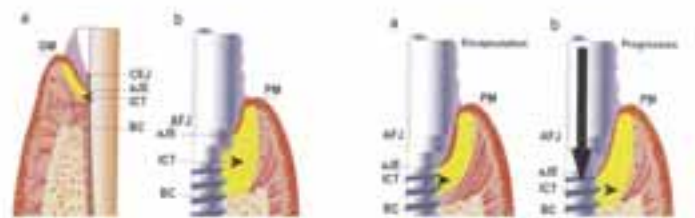
##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



임플란트 주위와 자연치 주위의 조직에는 결합조직섬유들의 주행 방향과 기시점 등의 특성이 다르며 임플란트에서는 치주인대 혈관총에서 받는 혈류공급이 없는 등의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자연치 주위의 잇몸 점막보다 혈관 분포가 적기 때문에 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세포가 동원될 확률이 낮고 재생이 덜 됩니다. 또 콜라겐 섬유 다발이 더 많아서 분해가 시작되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잇몸과 치아가 단단히 결합하는 부착조직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자극원이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기계적인 방어벽도 약합니다. 세균 침투가 시작되면 면역학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임플란트가 먼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태가 침착되어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면 치주 조직보다 더 큰 연조직과 주변 골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자연치보다 취약한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다른 진행을 보입니다. 또한 치주인대의 부재나 임플란트 표면의 특성이 병소의 형태를 결정하며 치주염에서 미세한 보호성 결합조직 캡슐(protective connective tissue capsule)로 인한 자기 제한 과정(self-limiting progress) 임플란트 주위 병소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치료

☞ **항생제 요법, 칫솔질 교육 등으로 구강위생을 증진하는 방법을 포함해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소독하기 위한 생리식염수나 레이저 등의 다양한 기계적, 화학적 처치, 주변 골재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 등 다양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부족한 각화 점막은 직접적인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원인은 아니지만 칫솔질이 잘 안되어 구강위생을 청결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각화 점막 양을 증가시키는 치은이식술 같은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위염이 있어도 뼈가 녹기 전에 치료 받으면 염증과 그로 인한 문제를 되돌릴 수 있으나 이미 뼈가 녹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 치료 목적이 되며, 임플란트 뿌리 측 3분의 1까지 골소실이 진행하거나 흔들리는 임플란트는 정상 기능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면 치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 인자들이 뼈에 영향을 주고 이미 뼈가 녹아 있어서 기본적으로 뼈 양이 부족하여 뼈를 만드는 수술을 동반해야 하므로 위험 부담을 더 크게 안고 재식립을 하게 됩니다.

### 임플란트 관리

☞ 치료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 과도한 씹는 힘 피하기, 정기적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철저한 위생 관리

임플란트 치아도 자연치아처럼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변 부위에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은 한번 시작되면 치주염보다 골 파괴 속도가 빠르고 느끼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이 잇몸 질환인 것처럼 새로운 임플란트 치아도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의 구강 위생용품 사용이 필수입니다.



치간 칫솔

치실

#### 2. 단단하고 질긴 음식 금지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은 피해야 하며, 특히 처음 1년간은 임플란트 주위 뼈가 단단해 지고 안정되는 시기이므로 부드러운 것부터 씹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물론 자연치아도 골고루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쪽을 고루 사용하여야 과도한 힘이 임플란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수직적인 힘에는 강하지만 수평적인 힘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임플란트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벗어나 무리가 올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부서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여도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 임플란트 수술 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니다.

### 3. 금연

담배를 피는 분들에게 금연을 강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굳게 맘을 먹어도 금연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플란트 애기를 할 때 마다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흡연은 최악의 조합으로 이빨의 색을 누렇게 만들 뿐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후 치유과정 및 인공 치근이 잇몸뼈에 잘 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 4. 정기 검진

치료 완료 후에는 3~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임플란트 주위 염증을 치료합니다.
- ② 변화된 교합 상태 확인 후 교합 조정을 합니다.
- ③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의 제거 후, 소독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심은 사람의 80%에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을 갖고 있으며 이 중 3분의1은 주위염으로 진행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1년 안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편함이 없다 보니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1~2년은 편했다가 안 좋아졌다고 호소하며 치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가 불편해서 못 씹겠다고 오는 환자 10명 중 1명은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고 스케일링 등의 치료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두 완료 된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치료 후에는 3~6개월 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임플란트 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흔들리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경** 교수 | 치과

□ 전문진료분야  
치주과 일반진료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외래	

# 미국에서 온 편지 #3

 박종빈 교수·피부과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박종빈입니다. 2023년 8월, 저는 보다 깊은 임상경험 및 연구를 위해 미국 동부의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피부과로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볼티모어는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항구와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매력적인 항구 지역인 이너 하버, 미술관, 수족관 및 역사적인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포트 맥헨리는 미국의 국가인 'The Star-Spangled Banner'의 영감이 된 장소로, Francis Scott Key가 1814년 영국과의 전투 중에 영감을 받아 이 노래의 가사를 썼습니다.

존스홉킨스병원과 의과대학은 1795년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난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존스홉킨스의 유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부로 설립되었고, 세계적인 연구 및 교육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설립 멤버 중 한명인 윌리엄 오슬러는 실습 중심의 의학 교육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 의학 교육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Billings Administration Building

저는 현재 Cutaneous Lymphoma Clinic에 참관하여 다양한 피부림프종 케이스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을 통해서 T세포 림프종 질환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B세포 림프종 환자들에 대한 환자 관리도 관찰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 클리닉 세션(8시-12시)동안 13-15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장시간 면담, 진찰(교수님께서 모든 환자에게 직접 림프절 촉진을 하십니다)을 하면서 초진 환자는 거의 30분 정도를 할애하여 진료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 전에 먼저 예진을 한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들과 환자에 대해 어떻게 케어할지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배운 이런 이상적인 진료 및 교육의 모습들을 바쁜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부림프종과 관련하여 저색소성 균상식육종 환자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열린 World Congress of Cutaneous Lymphoma 학회에 참석하여 해당 주제로 구연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 다른 상급 의료 기관의 환자 데이터를 추가로 모집하여 계속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Billings Administration Building에 있는 예수님 조각상

를 분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해본 적 없는 Pipetting과 원심분리를 배워서 하고 있는데, 논문에서만 보던 실험기법을 직접 해보니 처음에는 재밌기도 했지만 과정보다 복잡하고 결과도 일정하지 않아 기초과학연구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피부병리과 교수님들께 부탁드려서 클리닉이 없는 요일에 피부생검 병리슬라이드를 판독하는 세션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에서 시행한 조직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타병원이나 타과에서 온 의뢰 슬라이드도 함께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하지 않아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희귀한 피부질환과 피부암 슬라이드를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존스홉킨스 피부과의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인 CTReP (Clinical and Translational Research Program)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CTReP 프로그램은 기초 과학 연구실에서 얻은 결과를 임상 응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하게 검증된 최첨단 발견들이 환자 치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여러 연구 중에 피부림프종 환자들로부터 혈액이나 조직을 기부 받아 추후 분자 생물학적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Cutaneous Lymphoma Database and Biorepository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 동의 취득 및 채취한 혈액에서 말초혈액 단핵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Aseptic Laboratory Workstation



피부병리 판독실

저와 가족들은 다소 치안이 좋지 않은 볼티모어를 벗어나 근교에 위치한 메릴랜드의 하워드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선호되는 지역이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한인 마트나 한국 음식점, 한인교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인근의 한인 교회 빌립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여러 제자훈련과 사랑방 모임에도 참여하며 교회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의 교제와 다양한 교육들이 타국에 나와 있는 저에게 많은 영감과 힘을 주어서 미국 생활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신 병원장님과 학장님, 피부과 서기석 교수님, 장민수 과장님, 성설화 교수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수를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환자 진료, 연구, 교육에 있어 보다 나은 의료인으로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빈** 교수 | 피부과

□ 전문진료분야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 피부질환

載  
藥  
山

하늘억새길을 따라서  
영남알프스 재약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재약산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에 있는 산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걸쳐 있기도 하다. 산의 이름은 신라시대의 어느 왕자가 이 산의 샘물을 마시고 고질병이 나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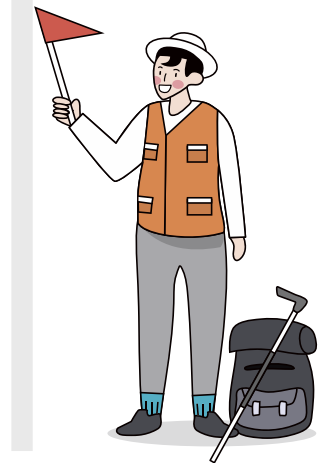
최고봉을 수미봉이라 하는데, 바로 옆의 천황산 사자봉과 묶어서 그 이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산이다. 많은 자료에는 그 높이가 1,119m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상석과 산의 표지판 등에는 1,108m로 적혀있다.

산 아래에는 천년고찰 표충사가 유명하며, 배내골과 주암계곡과 철구소, 층층폭포와 금강폭포 등 절경을 품고 있다. 산새가 수려하고 다채로워 삼남금강이라 칭송받으며 최근에는 하늘역새길 트레킹 코스로 그 명성이 더욱 자자하다. 재약산에는 죽전마을-주암삼거리-사자평고산습지-재약산-천황산으로 이어지는 사자평역새길이 포함되어 있다.

## 단풍사색길

하늘역새길 중 단풍사색길을 지나서 사자평역새길을 향해 걷는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초입에 다다라 점점 사색이 되어가는 단풍의 빛깔이긴 하여도 사색을 즐기기에 충분할 만큼 은은하게 물들어 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핑크핑크하거나 황금색으로 팔랑거리는 단풍의 잎새들. 때로는 우수수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도 하여 옷깃을 바짝 세워 여미게 한다.

들머리인 배내고개에서 능동산을 오르는 대신 임도를 택한 이유는 이름 그대로 단풍사색길을 만끽하기 위해서인데, 걷는 내내 그들의 마중을 받으며 사색을 즐길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오를수록 빛깔이 퇴색되긴 하여도 더러는 늦둥이로 피어난 야생화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한다.





입도 오름이 끝날 즈음 제법 송골송골 맺힌 이마의 땀방울을 닦고 목을 축이고 갈 수 있는 쇠점골약수터에 도착한다.

그 즈음 구름 뒤로 숨었던 햇살이 나타나 방긋방긋 웃어주어 더 좋다. 마침내 오름이 끝나고 약간의 부침이 있기는 하여도 쪽 오솔길을 걷는 느낌이다.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재약산과 천황산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무념무상으로 걸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진다.

약수터에서 능동산 2봉으로 오르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은 백운산 너머 가지산-운문산-역산으로 이어진 능선과, 배내봉-간월산-신불산-영축산으로 이어진 능선을 일망무제로 바라보며 걸을 수 있다.

## 사자평역새길

천황산이 지척이고 샘물상회가 있는 평원에 이르면 바야흐로 역세의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계절의 흐름이 무상하게 느껴진다. 마침내 시작된 역세의 황홀한 춤사위는 아마도 사자평에 다다르면 절정을 이룰 것이다.

천황재에 도착하면 입도가 끝나고 정상을 향한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나무계단으로 시작된 오름길은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거칠어진다. 위험천만의 암릉을 타야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가다가 갈림길이 나타나면 무조건 좌측으로 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릉을 우회하여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정상을 오르지 않고 곧바로 사자평으로 가려한다면 천황재 오기 전 갈림길에서 주암마을 방향으로 길을 잡아 옛 매점 터를 지나 주암삼거리로 가면 된다.

재약산 정상에 서면 사방으로 펼쳐진 풍경의 파노라마가 가히 환상적이다. 바로 건너편의 천황산으로부터 능동산까지 이어지는 능선과, 그 너머로 장쾌하게 뻗어





나가는 가지산 운문산 억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반대편으로는 간월산 간월재 신불산 신불평원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하늘역새길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아직도 빛바래지 않은 사자평의 억새바다가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다. 정상에 널찍한 나무마루에 앉아 넋을 잃고 오래오래 바라보아도 마냥 좋은 풍경이다.

정상에서 사자평으로 내려가는 길은 옛 고사리분교 터에 다다를 때까지 나무계단 길이다. 고사리분교 터에는 내려온 나무계단의 가파름만큼이나 빠르게 흘러버린 세월의 흔적이 무성한 억새풀로 덮여 있다. 그리고 단풍나무 한그루. 기억은 완전히 덮이지 못하고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그래서 억새들도 시간을 잊은 걸까? 아니면 마침내 절정에 다다른 화양연화이거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피워내는 화광반조인 것일까? 햇살 찬란한 사자평은 가을날처럼 만발해 물결치는, 억새의 바다다.

아직은 가지 말라고 붙잡는 억새들의 아우성을 뒤로 하고 길게 이어진 숲속 나무마루 길을 따라 사자평을 벗어나면 주암삼거리다. 곧장 내려가면 철구조나 주암마을에 도착하고, 향로산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하면 다시 갈림길이 나온다. 사자평역새길은 이곳에서 배내골 죽전마을로 계속된다. 사자평에서 산을 내려가는

길은 층층폭포 흑룡폭포를 지나 표층사로 향할 수도 있고, 옛 매점 터를 지나고 샘물상회를 거쳐 케이블카로 얼음골로 내려갈 수도, 더 나아가 배내고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죽전마을로 가는 내리막길은 좁고 가파르고 낙엽으로 덮여 있어 자칫 위험천만일 수도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주 느리게 걷기를 권한다. 여전히 사자평에 남겨두고 온 미련을 곱씹으며, 그렇게 한걸음이 기억이 되도록 저장해가며 걷기를……. 그러다보면 어느 샌가 곱게 물든 단풍이 마중 나온 배내골에 도착하게 된다.

그때쯤이면 한걸음씩 저장한 기억이 완전한 추억이 되어, 가을이 떠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겨울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까 사자평에서 들었던 바람결에 서로 몸을 부비는 억새들의 소리가 그 옛날 고사리분교에 가득했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길은 죽전마을 버스정류장에서 328번 버스를 타고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나 울산역으로 가면 된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파래소폭포배내골중점에서 양산역이나 원동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도 있다. ♣

# 달빛 걷기

 김희자 수필가

추석이 지나자, 가을빛이 완연하다. 설악산 아래 다랭이논은 금파로 일렁이고, 앞집 텃밭에선 누렁던 감이 홍시가 되어간다. 큰바람이 지나가지 않아 올해는 모든 게 풍년이다. 개암나무 가지 끝에 울긋불긋 단풍 들고, 따갑던 벌이 점점 기운을 잃어간다. 바야흐로 거둠의 계절, 가을이다.

하늘은 깊고 고추잡자리 날갯짓이 힘차다. 풍년 든 들녘처럼 방에만 계시던 어머니의 볼이 퐁퐁해졌다. 농촌 밤의 정경을 도시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을에서 달빛 걷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팔월 보름이 지난 후라 휘영청 뜬 달은 볼 수 없겠지만, 여러진 달빛이면 어떠랴.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것이다.

달빛 걷기.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신명이 났다. 가을밤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 나도 달빛 걷기에 동참했다. 도실에서 온 사람들이 두레방에 모여 앉았다. 다정한 눈빛 가득한 젊은 연인, 아이들과 함께한 오붓한 부부, 둘도 없어 보이는 단짝 친구,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참여한 문인들……. 생각보다 참여한 사람이 다양하다.

오랫동안 사무장을 한 마을 이장님이 진행을 맡았다. 마을의 유래와 달빛 걷기에 관해 얘기하고, 바닷가 언덕에서 날릴 풍등을 나누어주었다. 등 표면에 각자의 소망을 적으라고 했다. 지금 내가 가장 소망하는 건 무엇일까. 살아보니 나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었다. 자식 잘되는 것이 가장 흐뭇한 일이었다. 소망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는가. 오늘은 큰딸을 위한 소망 하나 적어놓고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

각자의 소망 하나씩 풍등에 담아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삼삼오오 줄을 지어 어둠이 내린 마을 어귀로 향했다. 설악산 그림자에 안긴 마을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집마다 밝힌 등이 한 자락의 풍경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밤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대양으로 오가는 큰 배들이 바다 위에서 환하게 등을 밝히고 있다. 가을바람이 등줄기를 시원하게 쓰다듬고, 풀벌레 소리에 귀가 즐겁다. 이게 고향의 밤 풍경이다.

마을 어귀에서 밤의 정경을 감상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달빛은 흰하지 않지만, 길은 익숙해서 밤이라고 두렵진 않다. 포장되지 않았을 땐 돌길이었던 곳. 밭일하러 갔던 어머니가 농산물을 이고 들어서던 길이였다. 추억을 불러들이고, 옛길을 걸어서 음악이 흐르는 암수바위 앞에 도착했다.

암수바위가 있는 뜰에서 가을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가을밤을 장식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모였다. 남해에 거주하는 예인들이 재주를 뽐내는 날이다. 고향 남해의 굽이굽이 아름다운 능선과 바다 정경을 정결한 언어로 표현한 <남해 찬가> 11수를 한 구절씩 낭송했다. 문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곡 '봄날은 간다'가 연주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로하'같은 가을 노래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바다로 가는 길목인 논 자락에서 열리는 음악회라니. 감동 그 자체였다. 가을의 선율을 귀에 머금고 바닷가 정자로 발길을 옮겼다. 정자에 올라서니 발아래에서 파도 소리가 감겨온다. 정자에 둘러앉아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귀가 열렸다. 정신을 한데 모으니 영혼이 더 깊어지고, 자율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암흑 속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풀벌레 소리는 귓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파도 소리를 벗 삼으며 언덕을 올라 풍등 날리는 장소로 향했다. 길게 늘어진 불빛이 밤의 정경을 장식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감동 어린 메시지를 길 위에 쓰고 갔다. 덩달아 흥분한 나는 이런 체험은 소수만 느낄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타서 많은 이들이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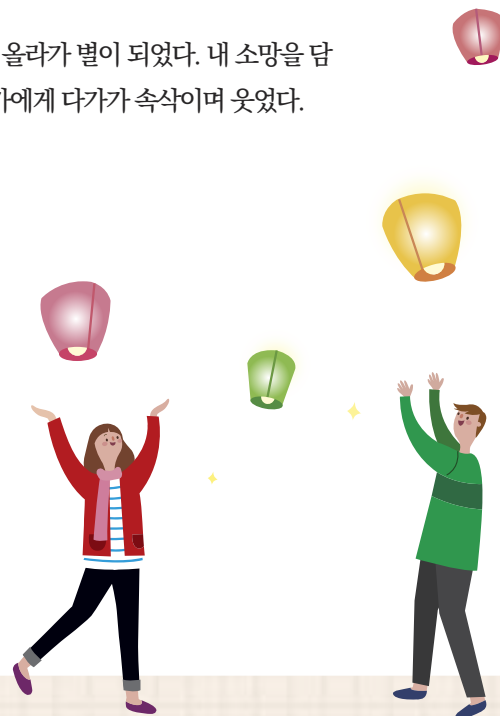
바닷가 가파른 언덕 위에 선 정자에 당도했다. 풍등 날리기에 어울리는 장소였다. 바람의 반영으로 좌우되는 풍등 날리기. 진행자의 염려와는 달리 풍등 날리기에 좋은 날씨였다. 하늘엔 별이 총총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한 바람이 참여한 사람들을 들뜨게 했다.

소망을 적은 풍등을 펼쳐 각자 들었다. 조를 나누어 줄을 일제히 서서 풍등을 마주 잡고 섰다. 행사에 참석한 젊은 청년이 아리따운 숙녀에게 즉석에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며 프리포즈했다. “와!” 바닷가 언덕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동행한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손뼉을 쳤다.

이젠 달빛 건기의 절정인 풍등을 날릴 차례이다. 마주 잡았던 풍등을 동시에 놓자, 바람을 타고 서서히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즐거운 환성을 질렀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바람 따라 높이 더 높이 오른 풍등은 점점 작아지더니 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다. 내 소망을 담은 풍등도 더 높이 올라 밤하늘의 시가 되었다. 나는 옆에 있던 아가에게 다가가 속삭이며 웃었다.

“아가야, 너는 멋진 우주의 별이 될 거야!” ✨





## 원목실 추천도서



### 위라클(WERACLE)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박위 | 토기장이 | 2022.09.05.

#### 책소개

유튜버 박위, <위라클 WERACLE=WE+MIRACLE>을 통해 우리(We) 모두에게 기적(Miracle)이 일어나기를 꿈꾸다. 38만 유튜브 채널 <위라클 WERACLE>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을 전하고 있는 박위의 이야기다. <위라클> 채널의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린다. 희귀병 진단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하루하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등... 그들은 모두 <위라클> 영상을 통해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을 때 느꼈던 감정, 퇴원 후 죽음을 다해 재할에 힘쓰던 과정, ‘장애’와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좌절 가운데서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고, 0.000001%의 가능성만 있다라도 희망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삶 그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 저자소개 | 박위

그는 자신의 건강한 육체와 삶을 사랑했던 청년이었다. 게다가 대학 4학년 졸업도 하기 전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정직원이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28세 5월 어느 봄날, 그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갓 사회인이 되어 신나게 일하며 커리어를 쌓아가려는 순간, 그의 인생은 멈추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삶을 선택했다. 폐허가 된 육체의 재활을 위해 치열하게 자신과 싸웠다. 그리고 현재 그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거러던 주치의의 선언이 무색하게 직접 운전하며 자유롭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독자들의 삶에 깊은 도전을 주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그만의 철학이 있다. “조희수 1은 단순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한 생명이다.” 그에게 유튜브는 이미 사명이 되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홍보대사 유니캐스터, 롤러레몬 엠베서더, ‘체리’ 기부플랫폼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시사저널 ‘2021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복지상> 서울시장상, <유공표창장>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SBS 스페셜 <나는 산다>,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채널A <아이콘택트>,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 고난극복: 변명용

한창수 | 규장 | 2024.11.05.

#### 책소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 ·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기성나팔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로

#### 출판사 서평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해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고난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저자는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지를 따스한 격려와 함께 이 책에 풀어놓았다.

저자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옴의 고난을 묵상하며 ‘변명용’으로 풀어낸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 기성나팔, 고난은 나를 명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로”란 의미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고난의 이면에는 ‘변명용’이라는 고난의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 고난의 시기가 다가올 때 고난의 네 가지 얼굴인 ‘변명용’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간다면, 선하신 롬팔이팔(롬 8:28)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 저자소개 | 한창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던 소년이었다. 맑은 미소를 지닌, 여전히 소년 같은 그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과 더 오래, 더 가까이 있으려고 목사가 되었다.

온통 어둠뿐이던 어린 시절, 누군가 심어준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삶에 들어가 깊이 박혔다. 그리고 빛이 되어 그를 이끌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는 오랜 암 투병 끝에 쇼크사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돈을 벌겠다고 삼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 형은 공부하겠다고 서울러 집을 떠났다. 홀로 남은 그의 삶에는 어둠과 혼돈만 가득한 것 같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롬팔이팔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교회 가면 필통 준다든 친구의 말에 따라나선 것이 교회로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고, 말씀이 믿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다. “...돌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 6:30)라고 하셨기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도 그의 표정은 늘 밝았다.

신대원 시절, 우연한 기회로 말씀암송으로 무장한 다음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종합선교 규정에서 뽑고 있던 이슬비 장학생(현 303비전 장학생)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롬팔이팔의 하나님이 그의 삶에 두신 의미 있는 믿음의 한 수였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들이는 거룩한 노동인 성경암송을 통해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 빛나듯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고, 303비전성경암송학교 설립자인故 여운학 장로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303비전이 그의 목회 철학이 되었다.

경북대학교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영국 브리스톨트리니티칼리지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대구 엠마오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회하고 있다. 여운학 장로의 뒤를 이어 303비전성경암송학교 2대 교장으로 말씀암송 자녀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김천대학교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경북과학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섬기고 있다.

[출처: 예스24]

우 리 부 서 를 소 개 합 니 다 | 적 정 진 료 관 리 실

#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Best Department", 적정진료관리실을 소개합니다





Best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향한 저희 부서원들의 자부심이자 추구하는 잣대인데요, 대다수의 직원들은 저희 부서를 잘 모르거나 조금 피곤하게 하는 부서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어떻게 하면 벗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병원보에 부서 소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흔쾌히 수락하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짧은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저희 부서를 제대로 알리고 직원들과 함께 “Best Department”를 넘어 “Best Hospital”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서 직원들을 소개하면 5명의 출중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한 전담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에 의해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및 환자안전, 의료 질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기준과 관련 학회 및 평가에서 권고하는 권장 학위 및 전문 교육을 받은 자가 발령을 받게 됩니다. 발령 이후에도 업무 향상을 위한 컴퓨터활용능력 등 각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적정진료관리실에 배치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발령을 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격 기준 및 역량을 갖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정진료관리실 업무는 QPS팀에서 QI활동, 지표관리, 진료지침(CP)관리, 환자안전 관리, 위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정성평가팀에서 영양급여적정성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외부 평가로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으로 3가지 기본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나(1)는 표준화된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적정진료관리실은 의료기관인증규정에 대해 현재는 118개의 규정을 정기적 검토 및 필요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규정 및 정책에 명시된 기존 절차가 변경되거나 신규 절차가 추가된 경우, 의료법 및 보건당국의 권고안, 지침 등이 시행 및 시행 예정인 경우 관련 부서 및 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승인 후 공표하여 전 직원에게 알리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2024 QI활동 지원금 포상(2024.06.03.)-342명



4주기 현지도사



리더십 환자안전라운딩(2024.06.28.)



리더십 환자안전라운딩(2024.10.31.)



2024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 [안전한 진단을 위한 실천사항]

둘(2)은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을 받은 후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으로 적정진료관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부서 QI활동 및 환자안전사건 발생 시 이런 부분을 점검하여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3)은 상호 논의를 통한 결정과 이를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QI활동 및 환자안전 발생 건에 대한 개선활동으로 제작된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직원 간 소통과 부서장 보고 및 논의를 통한 결정 사항을 관련 직원에게 각종 게시판 및 공지하는 등 적극적인 전달로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인증평가입니다. 직원분들이 적정진료관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의료기관인증평가라고 하면 다들 ‘아~하’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만큼 의료기관인증평가는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과 육아, 퇴직까지도 계획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대해 잘 알고 나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직원, 그리고 경영진까지 반드시 있어야 할 평가이고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준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9월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진입하고 4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수검을 받았습니다. 본원은 2011년부터 1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아 왔고, 지금까지 ‘인증’ 의료기관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엔 수검 받은 인증 또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정성평가팀에서 하는 영양급여적정성평가 업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며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영양급여 등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 환자중심성 등의 영역에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는 항목을 관리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영양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은 36개이며 적정진료관리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항목은 상급종합병원평가에 적용되는 9개 항목 중 6개 항목, 의료질평가에 적용되는 12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며, 그 외 항목은 부서에서 평가 대상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지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급종합병원평가 및 의료질평가에 적용되는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 QI(CQI)활동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영양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은 부서 QI활동이나 지표관리를 통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적정진료관리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며 여러 급변하는 의료환경 가운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중심의 치료, 전도, 교육을 실현하여 모든 인류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존중하고 성숙한 인격과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 진취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창의를 살아 숨 쉬는 복음병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적정진료관리실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환자안전보고(근접오류) 간편해졌어요!

### ■ 근접오류란


문제(Harm) 발생전에 발견되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업무과정상의 문제

1. 보고절차 간소화 : (이전) 부서장 승인 후 QPS 로 전송 → (변경) QPS 로 전송
2. 보고항목 감소 : (이전)20개 → (변경)6개
3. 보고 시 포상 : 3개월 동안 5건 이상 5만원(분기별 1 회 포상금 지급)

또 다른 실수가 동료나 환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오류 많이 보고해 주세요.



#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김미선 부장·간호부

## 간호부장이란 직함은 무엇일까요?

간호부의 대표 행정가이자, 최고경영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행정수간호사로 10년, 간호과장으로 3년, 간호부장으로 3년 6개월 동안 간호부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란 거대한 조직 속에서 수많은 부서들과의 관계, 노사 문제, 각 과마다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병원 조직은 모든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의 병원 근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그 예민함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합니다. 소속 기관에 대한 책임감으로 항상 중압감을 기슴에 지니고 살았지만,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속함이 없는 상태로 세상에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이 약간의 두려움과 낯섦을 불러옵니다.

익숙한 환경도 어쩐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듯한 떨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들 때마다, 병원에 속해 있을 때의 중압감이 한편으로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였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떠나, 이제 직장이라는 소속 없이 세상으로 나가야 함을 실감합니다. 주변의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어 다가가야 하기에, 퇴직 전 3개월의 휴가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말 필요한 시간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퇴직이 많이 남은 이들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 글을 적어봅니다.

아주 오래 전, 어느 곳에서 본 글귀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퇴직자들이 후회하는 것들” 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그 후회 중 첫 번째가 “**치아 관리**”입니다. 이유는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반감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본원 치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교수님께서 “본인보다 양치를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근치 어른임을 인정받았네요. 사실 치아 관리가 잘된 건 제 노력보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덕분이겠지만요.

두 번째는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입니다. 여성은 몸매와 피부 관리, 남성은 금연과 탈모 관리가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죠. 다행히도 5년 전, 입양된 반려견이 출근 전 한 시간, 퇴근 후 1~2시간씩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큰 변함없는 몸무게로 체중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쉬면서 가장 좋은 점은 반려견 백호와 운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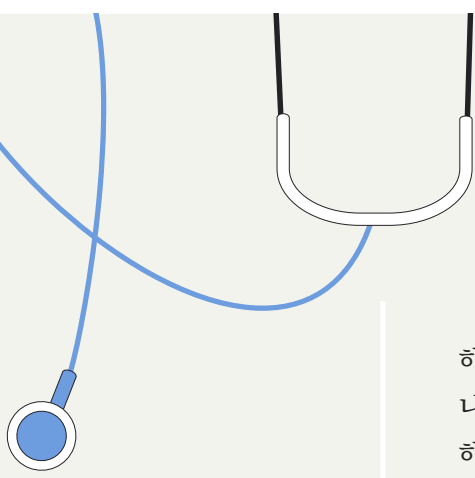
시간입니다. 백호라는 이름은 쌍둥이 아들 원호와 민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으로, 새하얀 털이 매력적인 친구라고 백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집에 와서 백호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딴 백호 이름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결론은 2년 전부터 골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한 친구 부부의 설득 끝에 시작한 골프는 퇴직 후에 저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취미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많이 저축해둘 걸”,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둘 걸”, “여행을 더 많이 할 걸”, “부모와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를 충분히 할 걸” 등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가슴에 품고 살며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이 글을 남기면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더 늦어 후회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음병원  
명의를  
만나다



 구유진 기자·고신언론사

## 피부과 장민수 교수 환자와 공감대 형성하는 믿음을 주는 의사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몸 표면을 덮고 보호하는 피부일 것입니다. 잘 보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그 중요성은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몸의 조직과 수분을 보호하고 외부의 기온과 접촉, 압력 등의 감각을 수용해 부상을 방지하며 체온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깨끗한 피부는 여성들이 꿈는 최고의 미의 기준이 되면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갖고자 노력하는 이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부과 장민수 교수는 광의학과 여드름/주사 등이 두 가지에 관한 관심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연수하고 돌아와 현재는 계속된 연구하는 것은 물론 환자 치료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은 여러 질환의 환자를 진찰하는 것보다 제가 주로 보는 분야는 여드름/주사와 그다음 광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들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광의학회(Korean Society for Photomedicine) 회장직과 대한여드름주사학회 기획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 학회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실 텐데요. 대한광의학회는 빛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과거에는 건선과 아토피, 백반증 또 여러 질환을 자외선으로 치료해왔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여드름주사학회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여드름 전문 학회로 창립된 이래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초기에는 여드름이라는 하나의 피부 질환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여드름뿐만 아니라 주사(rosacea), 화농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에 이르기까지 더 다양한 질환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또 여기서 말하는 주사는 질환명입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보이는 질환이죠. 주사는 술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흥조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깁니다.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건 갱년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광 치료를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 방사선 치료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광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이고,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임신부도 받을 수 있어요. 환자 분들이 겪는 가려움증에 이런 광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서 쓰이고 있어요.

가려움이 심해지면 먹는 약도 사용하면서 자외선 치료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조직 검사를 통해 염증 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염증세포가 많은지에 따라 특정 파장대를 강하게 낼 수 있는 UVA-1 기기로 피부가 딱딱해지는 피부 경화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 난치성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데 한강 이남에는 우리 고신대복음병원밖에 없습니다.”

장민수 교수는 이처럼 광 치료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치료 결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고신대복음병원 내에 광 치료 기기에 특화된 교실이 있었으며, 아울러 피부과 안에 좋은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기억에 남는 환자로 아토피를 앓았던 소아 환자를 꼽았는데, “소아 환자다 보니 약을 쓴다든지 치료에 제한점이 있었죠. 또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는 질환일수록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귀가 얇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어떤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잘 받던 병원치료를 중단하세요.

치료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UVA-1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소아 환자가 자외선 치료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8,9살쯤 됐을 거예요. 곡선의 통 모양 기기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

고 얼굴을 찌면 안 되는 거였죠. 불안해하는 소아 환자에게 얼굴을 가리고 기기 안에 들어가면 몸이 변신해서 더 좋아진다고 말했더니,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었답니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두 분 교수님이 계셨고, 인턴 시절 때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는 과가 피부과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것을 직접 보여주는 곳이 피부니까요. 예를 들어 황달이다. 그러면 간이 나쁜 거니까 특정한 소견이 특정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유추하고 연구 치료하는 피부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버님께서 침례병원에서 의사로 계셨고, 교회에 나가고 또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사실 피부과 특성상 환자가 죽고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끄심을 느끼고 떠날 수는 없음을 압니다.”

장민수 교수가 생각하는 명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은 환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겠지만 실력만 있다고 해서 명의라고 말하기는 힘들니까요.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의사!

그 믿음을 주려면 환자와 어떤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이제 정년 은퇴까지 10년 정도 남았는데요. 제 바로 아래 선생님과 16년 차이가 나요. 피부과를 전공한 많은 의사가 개업도 하겠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연구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학에 남아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 또한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피부과는 꼭 필요한 과입니다. 모든 과의 환자 중에 피부과적인 소견이 필요하니까요!” ✨

#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 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문형환 교수님 추천

꼼꼼하게 환자를 체크하시고,  
늘 좋은 의견 주시는,  
성실하여 모범이 되시는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조지훈 교수님**  
추천합니다.



간담도취장외과 · 이식외과 조지훈 교수

수술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호전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올 때, 또 잘 회복해서 퇴원할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함께하시는 교수님들(신동훈, 최영일, 문형환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함께 힘써주시는 PA선생님들(김수진, 남수정, 임병은, 전재영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병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외래 김유진 책임간호사 선생님 추천

CT준비실 **김정남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외래 및 입원, 응급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줍니다.  
검사 시 필요한 부분이나 전처지,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까지  
잘 체크하여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어려운 부분까지 잘 헤아려주시는  
선생님의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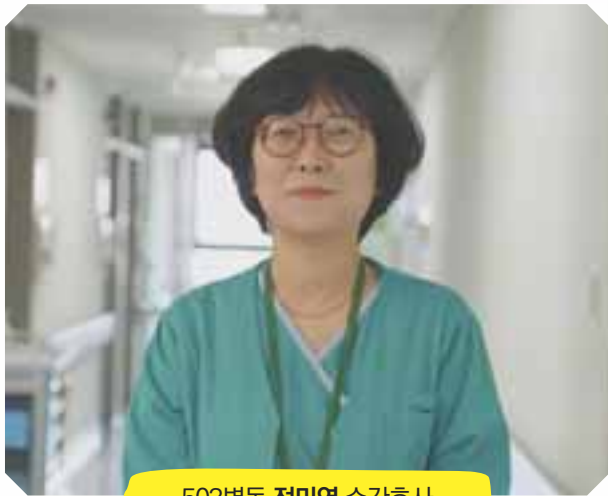
CT준비실 김정남 책임간호사

근무지에서 제게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인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과를 함께 하고 있는 CT실 김위진 계장님과 식구들,  
접수실 박민지 간호사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503병동 김선화 선생님 추천

503병동 **정미연** 수간호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병동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모두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애써주시는 모습  
 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때 언제나 찾아가서 맘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병동 해결사  
 수선생님 덕분에 병동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503병동 정미연 수간호사

숨은 칭찬 주인공들이 곳곳에 많이 계실텐데요.  
 제가 먼저 받아도 되는 것인지 부끄러움과 감사함과 더불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느끼게 됩니다.  
 1991년도에 입사해 지금까지 34년 동안 변함없이 간호사의 길을  
 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자 간호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503병동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환자 진료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과 교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완화의학과 정원길 교수님 추천

PC보수실 **윤양덕**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외래든 병동이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슈퍼맨처럼 오셔  
 서 맥가이버와 같이 해결해주십니다.  
 아마 병원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윤양덕 선생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컴퓨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섬겨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PC보수실 윤양덕 선생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병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응원으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2024년 9월 ~ 11월

##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 9월1주차 김지연 교수(정형외과) | 이주은 간호사(361병동)
- 9월2주차 심대무 교수(정형외과) | 최미경 책임간호사(504병동) | 504병동
- 9월3주차 김기록 책임간호사(510병동) | 장준호 PA간호사(정형외과) | 박배원 PA간호사(정형외과)  
남민지 간호사(504병동) | 이진우 팀원(보안팀)
- 9월4주차 김윤정 간호사(504병동) | 신온유 간호사(352병동)
- 10월1주차 정수윤 간호사(362병동) | 장서윤 간호사(511병동) | 최미경 책임간호사(504병동)
- 10월2주차 전주영 간호사(511병동) | 이민진 간호사(511병동) | 원현지 간호사(505병동)
- 10월3주차 피부과 외래 | 장서윤 간호사(511병동) | 심용우 교수(신경외과) | 강은정 PA간호사(신경외과)  
김희철 PA간호사(신경외과)
- 10월4주차 송은지 간호사(504병동) | 미화부 | 배근하 간호사(504병동) | 낮병동
- 11월1주차 송은지 간호사(504병동) | 박하영 간호사(509병동)
- 11월2주차 하서영 간호사(508병동) | 김태린 간호사(508병동)
- 11월3주차 김종인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 정상은 간호사(504병동)
- 11월4주차 박혜정 간호사(CCU) | 손설빈 간호사(CCU)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 SNS를 통해서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새로운 병원 소식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공식 SNS채널을 팔로우 해주세요.

## Follow me

지금 바로 카메라 앱을 열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Youtube



<https://www.youtube.com/@GospelHospital>

유튜브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채널 구독



블로그



<https://blog.naver.com/kugh1951/>

네이버 블로그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이웃 추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sinmed1951/>

인스타그램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검색 후 팔로우

# Focus View

## 고신대복음병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의료봉사활동 펼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해외의료봉사팀이 의정갈등 어려움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단기 해외의료봉사팀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에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고신대복음병원 해외의료봉사팀은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인접국가인 에스와티니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교수진 5명과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를 비롯하여 58명의 의료진이 참가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의정갈등 속에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고신대병원이었지만 올해도 교직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량으로 참여했으며,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이동하여 현지 환자들을 섬겼다”며 교직원들의 섬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의료봉사활동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접국가인 에스와티니 지역에 위치한 WITS 대학의 산부인과 교실을 방문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검진기구와 검진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플랫폼을 구성하여 현지인의 효율적인 검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2024.09.02.]

## 제6회 한국 로봇유방암수술학회 심포지엄 성료



제 6회 한국 로봇유방암수술학회 심포지엄이 9월 7일(토) 고신대복음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로봇 유방암수술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센터가 기존의 유방암 수술적 방법과 비교하여 내시경 또는 로봇 유방수술의 장·단점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 세브란스병원 박형석 교수, 삼성서울병원 류재민 교수, 서울아산병원 이새별 교수 등 국내 권위자 뿐 아니라 유럽종양외과학회 (ESSO)와의 조인트 심포지엄형식으로 프랑스,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해외에서도 중화의료 의료진들이 함께하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고신대복음병원 로봇유방수술팀은 2020년 11월 로봇 유방암 수술을 처음 시행한 후 2년 10개월여 만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간 100례를 돌파했다. 또한 세계적인 로봇수술 장비회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사로부터 'RNSM (Robotic Assisted Nipple Sparing Mastectomy)' 로봇을 사용한 유두 보존 유방암절제술에 관한 참관교육센터로 공식지정 받아 국내 로봇유방암 수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내외의 여러 의료진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09.09.]

## 제59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고신대복음병원이 9월 23일부터 3일간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제 59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호스피스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같은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뜻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199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두 차례씩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말기 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육성에 힘썼다. 고신대복음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말기 암 혹은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 만성간경화 환자들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 증상관리 자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중순 병원장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기독교 병원으로써 영적인 케어와 함께 환자가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9.23.]

## 안과 · 피부과 외래 리모델링 확장 오픈



고신대복음병원이 안과와 피부과 외래 진료실 확장 및 상담실 등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23일(월) 개소식을 가졌다. 기존 안과 외래진료실은 진료실 부족과 대기공간 부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피부과 역시 1동 1층의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동선이 공통되는 숙제로 지적 받았었다. 안과와 피부과 외래 진료실 및 검사실 뿐 아니라 전용 창구 및 하이패스 단말기, 처방전 발행기도 설치하여 환자들이 한공간에서 접수부터 진료 및 정산까지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동 지하1층에 위치했던 신경과 검사실도 이전하여 동선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병원은 이번 안과, 피부과 외래진료실 확장 리모델링으로 진료시간 부족 및 대기 지연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안과, 피부과 외래 확장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 차세대 로봇수술장비 다빈치 SP 도입



고신대복음병원은 9월 30일(월)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SP'를 도입했다. 다빈치SP는 단 하나의 구멍으로 로봇수술이 가능하며 하나의 팔에 관절이 있는 3개의 기구와 360도 회전이 가능한 3DHD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단일공(Single Port) 수술이 가능하다. 환자 몸에 작은 절개 하나를 내 수술하는데 각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흉터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미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암 수술에도 단일공 로봇수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신대병원에서 단일공 수술이 가능한 분야는 갑상샘암,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전립샘암, 두경부암, 담낭, 탈장, 부신 종양, 중격동 질환, 부인과 질환 등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2018년 다빈치 xi를 도입한 이후 로봇유방수술팀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간 100례를 돌파한 것을 비롯 활발하게 로봇수술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중순 병원장은 "로봇수술센터 의료진은 안전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수준 높은 트레이닝을 받으며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며 "표준 치료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로봇수술 분야에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 고액 기부자 모임 에클레시아 클럽 초청의 날 행사 성료



고신대복음병원은 10월 16일(수)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 드로잉 홀에서 고액 후원자를 대상으로 에클레시아 클럽 초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신대복음병원 보직교수진이 참석했으며, 고액기부자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핵심기업인 리노공업 이채운 대표이사, 부산어묵 브랜드화의 주역인 고래사 김형광 대표이사, 부산 대표 철강 회사 한국선재 이제훈 대표이사, 항행 장비 전문 기업 케이씨전자 박수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서 개최된 시민총회를 뜻하며 기독교에서는 모임과 공동체의 의미로 통용해왔다. 고신대병원은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에클레시아 클럽을 지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중순 병원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훌륭한 표본이 되고 계신 부산 지역 대표 기업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기부활동이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병원은 계속해서 국내외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7.]

# Focus View

## 부산지역 로봇수술 명가 도약 준비 마친 고신대복음병원 '다빈치 SP 첫수술 개시'



고신대복음병원은 10월 30일 로봇수술장비 다빈치 SP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환자는 60대 전립선암 환자로 이날 오전 비뇨의학과 강수환 교수가 집도했다. 다빈치 SP 수술은 기존 다빈치 Xi에 비해 진일보한 모델로 단일공 수술이 가능한 장비다. 로봇조작시 안전시스템이 기존 다빈치 Xi모델보다 보강되어 더욱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더 작은 수술절개창이 가능해진 것도 장점. 기존 로봇수술은 6cm 정도를 절개했다면 SP 장비로는 4cm 정도로 가능해 수술후 회복기간이 보다 빨라졌다. 고신대복음병원은 2018년 다빈치 Xi 도입 후 최근 다빈치 SP를 도입해 로봇수술센터 명가로 도약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세계적인 로봇수술 장비회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사로부터 'RNSM (Robotic Assisted Nipple Sparing Mastectomy)' 로봇을 사용한 유두 보존 유방암절제술에 관한 참관교육센터로 공식지정 받아 국내 로봇유방암 수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내외의 여러 의료진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 보건의료정보원으로 부터 EMR 인증 및 현판 수여받아



고신대복음병원이 지난 10월 3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전자무기록시스템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염민섭 원장이 직접 고신대복음병원을 찾아 진행된 행사에서 보건의료정보원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갱신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보건복지부가 부여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전자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의료법에 따른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받은 EMR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여 환자안전 강화, 의료질 향상 및 진료연속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원내에서 운영하는 EMR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에 대한 90개의 인증기준에 대해 현장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갱신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국내 EMR 시스템의 환자안전 기능 강화 및 의료데이터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전자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인증된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4년 9월 기준 4026개소로 지속적 확대 중이다. [2024.11.01.]

## 직업환경의학과 김정원 교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제20대 회장 선출



직업환경의학과 김정원 교수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기술헌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2년이다. 김정원 교수는 현재 부산-울산 직업병안심센터 소장,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수협중앙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의료자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직업환경의학 성장, 근로자 건강보호, 직업병 예방 등 직업보건 분야의 발전에 힘써왔다. 김정원 교수는 이번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임기를 통해 기존 직업환경의학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을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학술단체이다. 매년 봄 가을 학술대회를 통해서 직업과 환경영역의 의학과 보건관련 연구성과와 산업보건관련 사회 이슈를 발표한다. 또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자격과정을 관리하고,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KOSHA),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11.]

## 고신대복음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고신대복음병원이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최근 중증도, 난도가 높은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 중소병원들과 협력하게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해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65%인 31곳이 구조전환에 참여,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해 마련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의 지원사업 기간 중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예정이다. [2024.11.13.]

## 2024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연수강좌 성료



고신대복음병원이 11월 16일(토) 오후 2시 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2024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화와 노인병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진료 영역을 관할하는 학회로 유관 기관에 보건정책을 건의하여 노인복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노인의학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200여명의 의료진이 모인 가운데 최중순 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강의는 '노인의 뇌건강'이라는 주제로 창원경상대병원 신경과 김승주 교수, 양산부산대병원 신경과 안성호 교수, 고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신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제2강의는 '진료 감별에서 처방까지'라는 주제로 동아대병원 피부과 윤정호 교수,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박현준 교수, 양산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조영해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세션이었던 제3강의에서는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김규리 교수, 고신대복음병원 위장관외과 서경원 교수, 동아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종화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를 이끌고 있는 의료진들이 한마음을 모아 노인병 연구에 매진하여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2024.11.18.]

## 독자 QUI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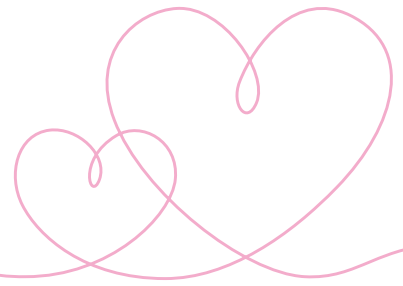
응답기간: 2025년 2월 21일(금)까지  
추첨결과: 2025년 3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 KOSin 사랑in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병원장 장기려박사님(1911~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 2024년 하반기 국내 의료선교 활동

#### 1. 해외의료봉사 지원

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에스와티니(에스와티니 기독교대학)

기간: 2024.08.10.(토) ~ 2024.08.21.(수)

▶ 의료봉사를 위한 약품지원, 문화사역 및 어린이사역 지원

#### 2. 김해 다문화 어린이 및 학부모를 위한 의료선교

2024.10.27.(일), 합성초등학교(김해)

2024.11.17.(일), 금병초등학교(김해)

2024.11.30.(토), 동광초등학교(김해)





■ 의료선교 운영 일정

2024.10.27.(일)

순	시간	소요(분)	내용	장소	비고
1	13:00~13:20	20'	등록 및 개별 면담	서관2층 강당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김영미, 김동현) 본교 통역지원단 (희망학생 및 통역자) 교육정보지, 간식
2	13:20~14:00	40'	학부모 협의회	서관2층 강당	
3	14:00~15:00	60'	문화행사	서관2층 강당	축사, 연혁보고, 동아리발표(3팀) 기념촬영
4	15:00~17:00	120	과별 진료	본관 가온누리등	대기자 최종 진료 시까지 진행
5	17:00~		폐회 및 정리		

■ 진료과목 및 세부내용

2024.10.27.(일)

진료 과목	진료 내용	담당자	장소
호흡기내과	기침환자 진료, 흉부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	옥철호 교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호흡기내과	교무실
재활의학과	근골격계 질환 진료, 근골격계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	강승훈 전문의 화명일신기독병원 재활의학과	가온누리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질환 진료, 소아 근골격계 엑스레이 및 성장 상담	김민지 원장 한마음 소아청소년과	가온누리
아토피 · 알레르기	소아청소년과 피부 알레르기 검사 및 판독, 식이 교육	강소은 원장 남부민의원	과학실
초음파 검사	유방, 간, 난소, 자궁, 갑상선 등 초음파 검사	박재춘 소장 서면휴병원 영상의학과	2층 돌봄교실
치과	치과 질환 치료	임석주 원장 김해아름다운치과 원장	가온누리
가온누리	통증 치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재활치료실	2층 돌봄교실

■ 참여 · 협력 · 후원 전화문의 :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051) 990-5775



#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12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최종순	화,금	월,목	비타민 고용량요법, 임의 보완통합요법, 특이중상클리닉(자율신경 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공은희	월,수,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화,금	화,금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 평생 건강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클리닉, 유전자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신영훈	월,목	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화,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체클리닉
	문형환	수	수,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간담체내과	조지훈	수	화,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이상욱	월,수	월,수	간, 담도, 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만성 간염)
	서광일	해외연수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박현준	화,목,금	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월,수,금	목	췌장, 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감염내과	조수민	화,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수진	월,수	화	감염내과 일반진료
내분비내과	진솔	화		감염내과 일반진료
	김부경	화	월,수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박성우	월,수,목	화	당뇨병
대장항문외과	박태훈	화,금	월,목,금	내분비(당뇨)질환
	김봉천	월,목	화	내분비내과질환
	안병권	화,목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이승연	월,수	월,수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금	화,금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문예진		목	대장항문외과 일반진료
류마티스내과	이지은	월,화	화,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갑상선최소절개수술
	양송이	해외연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마취통증의학과	김구상	수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액와),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김근태	수,금	월,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김윤경	월,목	수,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방사선종양학과	류시경	월,목		통풍관리
	김두식	화	화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김동희	금	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무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비뇨의학과	김지욱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박경관	월,화	수,목	유방암, 간담체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국내연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허부소화기종양
	최지훈	화,수	화,목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우제상	월,금	금	두경부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신부인과	류현열	월,수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성	화,목	월,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월,수	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성형외과	강수환	화,목	화	로봇수술, 결석
	김원규	화,금	금	부인암, 종양,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월,수,목	월	부인암,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소아청소년과	오영림	월,목	목	고위험 임신, 조산
	윤항구	화,금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강태경	수,목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은택	수	수	부인질환(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외)
	박진영	월	월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소화기내과	이형석	수,금	수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김홍일	해외연수		수부질환, 수부외상, 선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김윤수	화	화,목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홍유라	목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수,금		마취 및 신생아 질환(생애 위험, 패혈증, 폐종, 폐기, 사망 예방, 무호흡, 생애 호흡 곤란 증후군, 생애 일회성 배변 회음, 편만 환 종근, 생애 지속적 폐색, 기관지 협착, 생애 경련, 생애 안압, 폐출혈, 영아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신경과	이정현	월,수,목		성장클리닉(성소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갈증 및 잇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규민	월,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성김	월,목,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지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안과외과
	정민영	화,목	월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알레르기 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천식 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염에 의한,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학
	최소윤	화,금	수	소아소화기질환(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체질환),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박선자	월,수	월,화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박무인	월,목,금	수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원	화,목	화,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화	수,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수	월,금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신경외과	정경원	해외연수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자(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최윤정	수		소화기질환
	손민영	목		소화기질환
	박지혜		수	소화기질환
	이명훈	목		소화기질환
신경과	유봉구	월,화,수	화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수,목	월,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이진형	화,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전병준	목	월,수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신경외과	조혁래	월,수	월	뇌종양, 두개저종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화,목	화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화	화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월	월,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승우	수,금	금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 외래진료시간표

2024년 12월 기준

※ 대표전화 ☎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 990-6119

※ 진료문의는 ☎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수,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화,목	화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신호식	월,수	월,수,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김예나	화,금	월,화	신장질환
심장내과	김송이		금	신장질환
	차태준	월,화,금	월,화,목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세포심장학
	허정호	월,수,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성일	월,수,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심장혈관흉부외과	김봉준	해외연수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화,금	수	순환기,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박성달	월,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박종인	화	월,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하지정맥류
	조성호	수	화,수	성인신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해영	월,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신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하지정맥류
	고택용	금	수,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문정민	화,수	목	투석로
	이상호		금	일반흉부, 기흉, 흉부외상
	이상준	목	월,화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안과	이승욱	월,수	목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준주	금	수,금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근시
	임춘현	화,금	수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알레르기내과	김희규	월,수,목	월,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길순	해외연수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지현	화,금	화,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완화의학과	정원길	월,화,수,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공섬김		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윤기영	월,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화,수	화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금	수,금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목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유방외과	정성의	화,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구상	월	월,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임체정위생검,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
	최진혁	수,금	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임체정위생검, 유방양성질환
응급외과	정주원		화	응급외과
	김영식		수	응급외과
이비인후감사선 두경부외과	이강대	휴진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목	수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재환	국내연수		중이수술, 이명, 어지럼증, 귀이염, 삼출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귀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귀벨로이드 중이, 전중추 비파괴, 축농증, 비염, 인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신재 특별 진찰
	이형신	월	화	두경부 중앙(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재활의학과	김주연	휴진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 클리닉, 코피
	김영준	화	수,금	두경부 중앙(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심영주	목	월,수,목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임재활
정신건강의학과	김호찬	목	월,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월,수,금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김현석	화,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공의	월,수,금	월,수,금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진료
정형외과	권영호	월	수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소학	화,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금	월,수,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월,수	목	족부(발, 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직업환경의학과의	심대무	수,목	월,화,금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김정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화,금	화,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월,목	월,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치과	김희진	화,목	월,화,목	치과보존과
	서고은	월,수,금	수,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화,수,금	화,금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월,목	월,수,목	치주과 일반진료
피부과	장민수	월,수	월,수	여드름/주사, 건선, 손·발톱색소질환
	박종빈	해외연수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핵의학과	서기석	화,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성설화	화,목	화,목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혈액종양내과	김희영		월,수	핵의학과 일반진료
	신성훈	월,화,금	수,목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화,목	월,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수,목	월,금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월,수,금	목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호흡기내과	정현영	월,화	목,금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정만홍	금	화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대원	월,수,목	수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화	수,목,금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태윤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발전기금 바로가기